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북부 선도하는 참언론 성장 기대



손학규
경기도지사

언론문화의 정착과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1천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천신문은 경기북부지역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폭력 높은

특히 지방화시대 불리우는 21세기에 포천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민선 3기 경기도는 지난 2년여동안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첨단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 노력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 살기기에 도정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무거운 과제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생한 민의를 울곧게 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바른 뉴스'를 제공하는 포천신문이 경기북부지역의 품뽀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참언론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뜻깊은 재창간 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포천신문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철우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화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도 경제도 이처럼 모든 이의 필요에 맞

게 순리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0년 창간한 포천신문이 그간 포천지역은 물론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대표적 언론지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포천·연천을 비롯해 경기북부의 각종 이슈와 사건·사고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그 모두가 포천신문의 지면에 오롯이 담겨져 있음을 생각하면 포천신문의 그 어느 기사라

도 험사리 지나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천신문의 포천시·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은 앞으로 21세기 통일시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으로서 그 많은바 역사적 책임이 막중함을 생각하면 포천시·연천군으로부터 시작해 나아가 경기북부의 진솔한 민의를 전하며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포천신문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번 재창간 4주년의 의미가 더욱 뜻 깊습니다.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북부 대표언론의 중심에서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때론 든든한 친구처럼 때론 호된 훈장선생님처럼 지역의 건실한 정보제공자로서 우리 서는 포천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북부발전위해 눈부신 활약 기대



문희상
국회의원
(의정부갑)

달을 위해 헌신하신 최호열 발행인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수직적 지배질서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처한 오늘날에는 종래의 고직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로는 변화의 흐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 과감한 도전정신, 그리고 입체적인 사고로 무장해야만 21세기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국적 판매망을 보유한 거대 메이저 신문사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경영전략과 편집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의 니즈(needs)에 부응해 온 포천신문은 이제 포천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등 경기북부

일원 지역주민의 다정한 벗으로 튼튼히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기북부는 이제 오랜 질곡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경기북부는 안보라는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 앞에서 스스로를 양보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부신 발전의 해태에서는 오히려 소외되어 왔습니다.

일렬로 행진하다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면 맨 뒤에 걸던 사람이 가장 선두가 된다는 비유처럼, 경기북부가 앞으로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끝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북부발전의 최전선에서 포천신문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냉정하고 공정한 비판지 되길



강성종
국회의원
(의정부을)

발행인과 편집 및 기사작성을 위해서 뛰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

의를 포함한다. 현대사회에서 신문이 던지는 파장 효과는 엄청난 것이고 많은 정보를 신문에서 얻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특히나 지역신문이 주민들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한 지역의 중심매체로서 주민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늘 함께 하는 것이 지역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포천신문이 재창간 4주년을 맞는 시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사회적 공기로써 비판에서

는 냉정하고 공평하게 앞장서 주시고 혹여 남에게 기사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신문으로 밝게 발전해 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정치나 행정에서 살피지 못하고 숨겨지는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매체 번영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에 오신 것 이상으로 앞으로도 포천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를 이끌어갈 지역신문으로서 정론직필하는 포천신문이 무궁발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신문으로 참언론 역할 기대



정성호
국회의원
(양주시·동두천시)

과거의 수직적, 권위적, 하향적인 사

회 시스템이 수평적, 탈권위적, 상향적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과정에서 객체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주체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정치의 흐름 속에서 지역신문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의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봉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정직한 대변자, 지역 정치 행정에 공정한 감시자가 되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

활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포천신문은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써내려간 기사 한 줄이 지역의 변화 발전에 기폭제가 된다는 높은 자긍심입니다. 이제껏 해 오셨듯이 정론직필의 마음가짐으로 울곧은 지역신문을 만들어 주시고 냉철한 눈으로 참 언론의 길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신문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포천신문이 지역의 유일한 언론사로서 늘 끼어있는 정신과 울곧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참된 지역신문으로서 항상 지역 주민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 번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맑고 투명한 거울 되길



박운국
포천시장

저는 자기반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라야 비전과 발전이 있으며, 우리 지역이 지금 어디쯤 서있는

가를 비추며 이 같은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주체가 바로 지역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신문이 뚜렷한 정론으로 지역사회의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되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발전지향적인 정책,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 언론의 올바른 지적이 있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포천신문이 지방분권시대에 바람직한 지역언론을 제시하고 소지역이구나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를 지적하며, 지역의 이슈를 합리

적으로 점검·분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주민들의 아픈 곳을 위로하고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천시는 민선 3기 들어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포천을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쉬고 경제가 우뚝 솟은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포천신문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끝없는 자기혁신과 객관성, 진실, 공정, 공공성 등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더욱 많은 신뢰를 받으시고, 격조 높은 언론으로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언론 기대



김문원
의정부시장

역할을 해온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40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器이며 木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사명의 크고 중차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천신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오직 정도만을 걷는다는 신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뉴스제품과 출향인사 소식 등으로 서울과 포천시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포천시민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민의가 반영된 시점이 수립되고,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신문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포천신문이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로 지역의 발전과 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작은 소리에 두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지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맑고 희망찬 소식을 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감 있는 건강 한 언론사로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 여는데 앞장서길



임충빈
양주시장

열 발행인임을 비롯한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내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지구촌 내 무한경쟁시장이 대치해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처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사회적 현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언론매체에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언

론이 지혜를 내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 모두의 책무를 우리 지역 언론자로서 포천신문은 능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냉철하지만 따뜻한 정론직필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포천신문의 창립 4주년 축하와 함께,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시민들의 많은 사랑 받는 신문 되길



최용수
동두천시장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포천신문이 항상 따뜻하고

밝은 소식들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빠르고 소상하게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정보 제공으로 지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함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 및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이렇듯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속도가 지배하는 정보 통신

의 시대에, 이제 언론에도 새로운 개혁과 높은 경쟁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아주 전망있는 지역신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포천신문이 앞서가는 경쟁력으로 다른 언론보다 앞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재창간 내들을 맞은 포천신문이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흘려들지 않고, 울곧은 정론지로서 더욱더 번성하기바라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제시와 신뢰받는 언론으로



김규배
연천군수

은 사랑을 받으며 폭력 높은 언론문

화의 정착과 건전한 여론형성에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포천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각종 소식을 심도있게 보도함으로써 지역주민들간의 상호소통은 물론 상호간의 접촉을 위한 가교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신문의 기능을 경기북부지역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 포천신문에 거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오직 정도만을 걷는다는 신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신문이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한발 앞서서 나아가는 언론이 되기를 희망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흘려들지 않는 울곧은 정론지로서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역사회의 비전제시와 신뢰받는 언론지로서 발전하시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연천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북부 지역 정론지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